metro
메트로 2015년 1월 14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Global economy p/12
UAE 패션업계 '여풍 당당'

Entertainment p/18
정우·한효주 '달달한 커플'

## 실망스런 현대글로비스 매각 소동

**데스크 시각**
김종훈 (산업부장)

미국 포드의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생산하던 현대차가 1974년 자체 모델 '포니'를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는 변했다. 포니의 성공은 한국산업의 성공을 이끌었다.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제 세계 4위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과 외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소동은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주식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정규시장 거래시작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1.55%나 급등했다. 정 회장 부자가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 모비스 주식을 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매각 시도는 실패했지만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창출 여부를 떠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 실적은 대부분 현대·기아차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2면에 계속>

@metroseoul.co.kr

# 辛東彬 勝?

<관련기사 2면>

파스타 p/05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 사업 업무협약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 사업 외교부-코레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용돌이 빠진 롯데 오너家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동생보다 좋은 실적에도 해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 '단독 승계'가 굳어지는 걸까.

롯데 형제의 후계 구도는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어받는 식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한국 롯데그룹보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직과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며 신동빈 회장의 단독 승계로 기우는 분위기다.

형이 동생이 이끄는 한국 롯데보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임되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승계에 대한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기업분석업체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2013년 회계연도(3월 결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7572억엔으로 전년보다 34.3% 증가. 같은 기간 한국 롯데그룹의 성장률 11%의 3배에 달했다.

또 그룹이 출발한 곳은 일본이지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이다. 2013년 기준 한국 롯데그룹의 74개 계열사가 83조원대 매출을 올린 반면 일본 롯데 37개 계열사 매출은 5조7000억원 뿐에 되지 않는다.

형제는 그동안에 단독 후계자가 되기 위한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벌였다. 형인 신동주는 한국 롯데를 자지하기 위해 롯데제과 지분을 샀고, 동생인 신동빈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를 대거 한국 롯데호텔에 초대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의 승계를 둘러싸고 형제간의 왕자의 소송전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의 지분 규모는 신 회장의 지분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올해 94세로 꾸준히 건강 이상설이 도는 최고령 재벌 1세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후계 구도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창업 1세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에는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어온 고향잔치를 연기하기도 했다.

재계는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의 주요 임원직에서 해임된 직후 일본으로 떠난 신 회장이 귀국하면 롯데그룹의 후계구도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이번주 입국한다.

일본 경영권을 잃은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싸움에 나설 경우 계열사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국내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이 후계 구도 변화의 신호탄으로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데도 롯데 측이 신동주 부회장의 인사 배경에 대해 이렇다 할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은기자 sanaz@metroseoul.co.kr

겨울 바다로 풍덩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 장병들이 13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열린 혹한기 훈련에서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난사고 발생 시 침몰선에서 인명과 장비를 구조하는 해군 내 최정예부대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법 취지 우롱한 지분매각 시도"

## 투자자들만 골병

<1면에서 계속>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총수 일가 지분은 43.39%에서 29.99%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총수 일가가 상장계열사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경우 200억원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제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경우에 대해 시행을 1년간 유보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다음 달부터 해당된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한편 1조3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마련과 공정거래법 기준까지 충족시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은 탁월한 선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분을 낮춰 일감을 계속 몰아줄 수 있다는 논리적 해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개미주주들은 글로비스가 이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지분승계는 주식매각이 아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지분을 처분하면 되는 일이다. 정몽구 정의선으로 대를 물려 내려오는 국민들의 존경과 우한한 사랑이 열음장처럼 차가워 질 수도 있다.

/김승호기자

# 사물인터넷 시대 中企 돌파구 찾아야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 등 대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인 사물인터넷(IoT)에 집중하고 있다. 요즘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소외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보편적으로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물에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사물인터넷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사물인터넷은 지능화된 학습능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확장 등이 가능해야 한다.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도 협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없다면 국내 중소기업은 이 시장에서 모두 소외 될 것이란 걱정을 한다. 중소 기업들이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자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중인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넋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사물인터넷은 플랫폼 선점하는 기업이 무궁무진한 사업기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주공산 상태인 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 문희상 "올해 개헌 못하면 영원히 못해"

## "청와대 인적쇄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2개월 이상 큰 선거가 없는, 이런 적기가 어딨냐"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없다"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나. 왜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여당이 어떻게 험하느냐는 그 현장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다"며 김 대표에게 소신대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악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형,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자신의 평소 지론을 주장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진보·보수 없이 모두 청와대 인적쇄신을 주장했는데 신년기자회견에서 '하나도 안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어느 국민이 지지철회를 안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깝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과 대화·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공동번영과 통북화 평화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며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정부의 전향적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정기자 (사진)

# 산재·고용보험 확 바뀐다

## 출퇴근길 대중교통·자가용도 산재보상 받아

근로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안전망인 산재·고용보험이 확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천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외국 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직업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품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송병형기자 bjeong@metroseoul.co.kr

안산 인질극 진압한 경찰 13일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자녀들을 인질로 잡은 40대를 체포한 경찰이 인질극 현장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인질극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 "별거 중인 아내 불러달라"…안산서 '자녀 인질극'

13일 경기도 안산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5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해 온 김모(4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새아버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여자 고교생으로 보이는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6분 김씨의 처 A씨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4층에서 김씨가 고교생 자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잡고 있던 인질이 A씨의 전남편 B씨, A씨와 B씨가 낳은 두 딸, 딸의 친구 등 4명이 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면서 '아내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A씨가 현장에 와서 전화로 인질극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으며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A씨에게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 수십명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 경찰특공대는 인질극 5시간여 만에 옥상을 통해 창문을 깨고 진입해 김씨를 검거하고 부상자들을 이송했다.

/송병형기자

## 최태원 회장 등 1월 가석방 심사 제외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심사는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2년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1년 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됐다. /송병형기자

# 전국 곳곳서 화재

### 양주 아파트 사상자 6명

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고 나흘 만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의정부와 인접한 양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남매가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9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 안에 있던 장애인 곽모(23)씨와 누나(26)가 숨졌다. 당시 곽씨의 부모는 출근하거나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누나는 중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4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위층으로 삽시간에 퍼져 김모(23)씨 등 이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보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8층짜리 한 도시형 오피스텔 외벽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서울지구촌교회 건물에서도 불이 나 김모(39)씨가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병형기자

## 세모녀 살해 가장, 담담히 범행 재연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48)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 오전 범행 현장인 서초동 아파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40여 분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내 강씨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강씨는 카키색 점퍼·검은 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점퍼 후드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강씨는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 범행을 재연해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장면을 재연하는 순간에는 다소 참담한 표정이었으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시종 침착하고 담담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아내(44)와 큰 딸(14)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이 모두 잠들자 머플러로 한 명씩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배가 아프다는 큰딸에게 약이라며 이날 좀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했다. 이어 두 딸이 잠들자 수면제 반 개를 와인에 섞어 아내에게 건넸고 자기 잔에도 술을 따랐지만 아내와 함께 마시는 대신 밤으로 향했다. 그는 홀로 작성에 앉아 유서를 작성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이 든 아내의 목을 머플러로 졸라 살해했고 작은 방과 큰 방에서 자고 있던 큰딸과 작은딸도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15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송병형기자

## 경찰 올해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제도 및 조례·법령 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송병형기자

# 세상이 뒤집혔나?

metro Russia

## 거꾸로 하우스 인기

B России популярны перевёрнутые дома

러시아에서 '거꾸로 하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메트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따르면 한 번에 서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꾸로 하우스'가 최근 노보시비르스크에 등장했다. '거꾸로 하우스'는 기존 주택을 완전히 뒤집은 형태다. 거실 바닥이 천위에 있고 사람들은 지붕을 밟고 서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거꾸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메트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인젤리나 로마소바는 "거꾸로 하우스의 주인들 중에는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환경이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거꾸로 하우스를 세운 레브 마도티안 의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꾸로 하우스의 주인들이 모두 마도티안처럼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거꾸로 하우스가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내에는 20여 채의 관광용 거꾸로 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꾸로 하우스 관리자는 "관광객들은 거꾸로 하우스의 지붕에 걸터앉거나 거꾸로 하우스를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찍는다"며 "거꾸로 하우스 내부의 가구와 소품들도 모두 거꾸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예브게니야 일리바에바 기자
정리=이국명기자

# 美·이스라엘이 파리 테러 배후?

## 터키·러시아서 음모론 제기… '샤를리 에브도' 판매 50배 늘어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와 러시아의 친정부 인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멜리흐 고크첵 앙카라 시장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가 분명히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다"며 "이번 테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러시아에서는 파리 테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미국인들이 파리 테러를 저질렀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미국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

친정부 성향인 모스크바 응용문제연구센터의 알렉산더 지린 소장은 "파리 테러가 유럽연합(EU)에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를리 에브도 또 무함마드 풍자**

한편 이번 테러로 기자와 삽화가 등 직원 10명을 잃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최신호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또다시 실었다.

특히 표지에는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샤를리'(JE SUIS CHARLIE)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다 용서한다'(TOUT EST PARDONNE)라는 제목을 달았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번 최신호를 16개국어로 총 30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테러 전 6만부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 증가한 수치다.

샤를리 에브도의 변호인 리샤르 말카는 "(무함마드 만평에 대해) 살아남은 이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덴마크 왕세자도 갑질?

## 통제 교량 무단 통과해 국민들 원성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47·사진)가 강풍으로 출입이 통제된 다리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덴마크 교량 관리당국은 지난 10일 돌풍이 불자 1.6㎞의 스토르벨트 다리의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프레데릭 왕세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다른 운전자들을 뒤로 한 채 다리를 건너갔다.

교량 책임자는 왕세자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완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왕실 일가의 교통법규 위반에 함구해온 경찰은 예외적으로 왕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더 높였다는 점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원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국명기자

필리핀과 스리랑카·필리핀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연설하는 도중 갑자기 불어 닥친 강한 바람에 옷이 휘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 교황 방문 스리랑카·필리핀 비상

## IS 테러 위협에 경계 강화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IS)이 자기 테러 대상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 순방을 앞둔 스리랑카와 필리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이스라엘 국영TV 채널1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바티칸에 IS 테러범의 다음 목표가 바티칸 교황청이란 경고를 보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IS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앞서 지난 7일 IS는 이슬람을 소재로 풍자 만화를 그린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편집국을 습격해 국제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파리 테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IS를 비난했다.

교황은 "왜곡된 종교의 노예들이 신을 대학살의 이념적 핑곗거리로만 이용했다"며 "무슬림 지도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그들의 종교적 해석을 비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황의 순방이 예정된 스리랑카와 필리핀은 만일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교황은 13일부터 15일까지 스리랑카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만나고 각 종교 대표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으로 이동해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18일 대규모 미사가 열리는 수도 마닐라에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릴 예정인데다 IS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필리핀 당국은 안전 강화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김은희기자 unique@

# "파스타·피자로 직장인 입맛 사로잡을 것"

사람이야기

■ 카페 아토 김명철 셰프

큰 화덕이 자리한 두 평 남짓한 공간이 카페 아토 김명철 셰프(31)의 작업 공간이다. 13일 작업 공간에서 만난 그는 자신 있는 메뉴인 까르보나라 파스타와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들고 있었다. 혼자 피자 도우를 돌리고 토핑을 얹고 화덕에 넣어 피자를 완성한 뒤 팬에 베이컨과 크림소스를 붓고 그 위에 삶아진 파스타 면을 넣는다. 20분 가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두 메뉴를 만들었다.

김 셰프는 메트로신문사가 운영하는 카페 아토에서 유일한 이탈리안 요리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그가 온 이후로 점심 시간의 카페 아토는 커피전문점이 아닌 파스타나 피자 등을 먹는 레스토랑으로 변신한다.

그는 해외 연수 경험이 없지만 혼자 만의 방법으로 요리법을 터득했다. 우연히 접한 파스타 맛에 반해 혼자 돌아다니며 맛있다고 소문난 파스타는 거의 맛보았다고 한다.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파스타를 맛보고 자신만의 파스타를 만들었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다. 태권도 선수 생활 도중 회의감을 느꼈고 그때 좋아하던 것이 요리였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경양식 집에서 처음 파스타를 배웠고 이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파스타 가게를 돌아다니며 공부했다. 카페 아토에 온 지는 2개월 정도 됐는데 기존에 없던 식사 메뉴를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토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새로울 것이다."

가장 자신 있는 메뉴로 그는 파스타를 꼽았다. 파스타 외에 피자에도 공을 들이는데 그만의 비법 소스가 들어간다며 메뉴에 자신감을 보였다.

"9년 동안 공부하며 만들어 봤기 때문에 파스타만큼은 그 누구보다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다. 특히 볼로네즈를 맛본 손님들은 맛있다며 자주 찾는다. 맛도 그렇지만 직접 미트 소스를 끓여 홈메이드 식으로 소스를 만든다는 점이 손님에게 믿음을 주는 것 같다. 마르게리따 피자에는 그만의 비법인 렌치 소스가 들어간다. 이 소스는 마늘 향과 함께 레몬처럼 상큼한 맛이 나서 손님들은 기존에 먹던 마르게리따와는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선보이는 메뉴는 피자 5종, 파스타 2종, 리조또 3종 등 총 10종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맛과 양은 뒤지지 않는 식사를 내놓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주변이 거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재료는 아끼지 않는다.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카페 아토를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할 것이다."

카페 아토 김명철 셰프가 화덕에 피자를 굽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 다양한 식사메뉴 보강한 커피전문점으로

어떤 소신이 통했는지 SNS 등에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대에는 매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 지금 아메리카노와 파스타나 리조또를 함께 구성해 9900원에 런치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디너세트도 구상 중이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편의 제공도 하고 있다. 파스타를 컵에 담아 포장해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 음식이 식는 것을 고려해 그 컵을 포장 시트에 담아 준다. 이렇게 하면 30~40분은 보온이 유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컵 파스타'는 카페 아토에서 야심 차게 선보이는 것이다.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기획했는데 역시 반응이 좋다. 누들 박스처럼 컵에 담아 먹는 파스타는 쉽게 볼 수 없는 메뉴이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5번 찾아온 한 여자 손님은 매장에서 파스타도 먹고 항상 '컵 파스타'를 포장해간다. 이렇게 자주 애용하는 분들이 있어 보람이 있다."

김 셰프는 카페 아토를 커피와 함께 음식을 곁들이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퓨전 음식 등 다양한 식사 메뉴를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볶음밥 종류와 한식을 토대로 한 퓨전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을 이용한 소스로 만든 파스타와 같이 한식을 접목하면 새로운 이탈리안 요리가 탄생할 것이다. 디너 시간대에는 와인도 함께 판매하고 싶다. 좀 더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다가갈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 카페 아토 식사 메뉴 어떤게

카페 아토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스타·피자 등 식사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주요 메뉴를 소개한다.

**마르게리따**는 토마토 소스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고 오레가노로 향을 더한 이태리 정통 피자다. 가격은 1만2900원.

**고르곤졸라**는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고르곤졸라 치즈 특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피자다. 1만4000원.

**풍기**는 토마토 소스에 표고버섯, 양송이 등 버섯을 푸짐하게 얹은 건강 피자다. 1만2900원.

**허니갈릭**은 고소한 마늘튀김을 곁들인 달콤한 피자. 1만4900원.

**아토초리조**는 토마토 소스에 정통 초리조와 페퍼로니를 곁들인 매콤한 피자다. 1만4000원.

**까르보나라**(파스타, 리조또)는 베이컨과 버섯의 고소하고 깔끔한 풍미를 지닌 파스타다. 7900원.

**볼로네즈**(파스타, 리조또)는 소고기와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파스타다. 7900원.

**나시고랭**은 고추마늘 소스와 닭가슴살을 곁들인 매콤한 리조또다. 7900원.

식사 메뉴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런치 세트(파스타 또는 리조또+아메리카노)는 9900원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20개 한정이다.

**market index** <13일>

| | | |
|---|---|---|
| 코스피 | 1917.14 | (-3.61) |
| 코스닥 | 571.00 | (-3.7) |
| 금리 | 2.02 | |
| 환율 | 1083.20 | (-1.30) |

**뉴스&뉴스**

### KB금융그룹 여의도 시대

● KB금융그룹이 명동에 위치한 지주 사무실은 13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건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윤종규 회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그룹 시너지 극대화의 일환으로써 향후 지주와 은행간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주사는 지난 2008년 9월 KB금융지주 설립 이후 줄곧 국민은행 명동 본점 건물을 사용해 왔다. 이번 이전으로 KB금융지주의 여의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된다.

### 최대 연 7.0% ELS 공모

●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 오후 1시까지 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에서 'HI ELS 694호'는 KOSPI200 지수, EURO 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연 7.0%)의 수익을 지급한다.

### 中 장기가치투자 랩 출시

● KDB대우증권은 13일 중국 본토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KDB대우 중국 장기가치투자 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국 본토 상장 기업 가운데 구조적인 성장성이 높고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가치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현지 투자전문가이자 중국 5대 자산운용사인 보세라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아 운용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세경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4 3
독자센터 02)721-9861

# 8년 장기 임대주택 '뉴 스테이' 도입

## 세제·금융·자금 등 전방위적 지원

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8년 짜리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폭이 50%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8년간 100% 감면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지하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놨다.

먼저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수요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했다.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은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했다.

새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 중산층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에 해당됐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을 가설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계(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이선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주목' - IT업계 '글쎄'

금융당국이 올해 중장기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IT업체들은 손을 털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금융 혁신에 김이 빠졌다.

13일 IT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들어가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 자체은행을 만들기 보다 관련 법률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IT간 융합·연합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라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호언이 무색해져버렸다. IT업체가 불참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반쪽 혁신'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다. 이는 영업점 없이 영업한다는 점에서 점포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 경쟁력이 있다.

당초 이 은행은 전세계적인 핀테크 열풍과 한국판 텐센트, 알리바바를 만들자는 주문에 힘입어 IT·금융권과의 대표적인 융복합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률의 장벽에 가로 막힌 IT업계가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형태로의 혁신적 금융산업 탄생'을 점치기엔 여전히 이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핀테크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에 도입되고 성장하기까지 넘은 숙제도 산적하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지난 9일 첫 출범한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원칙,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한 뒤 3월쯤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 은행권, 스마트금융 경쟁

주요 은행들이 연초부터 스마트 금융 상품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뱅크월렛(모바일 지갑)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상품 'KB뱅크월렛 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뱅크월렛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점을 감안해 종이 통장이 발행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개발됐다. 통장 미발행으로 절감된 비용은 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스마트뱅킹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만의 스마트뱅킹'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를 스마트뱅킹 실행 과정에서 표시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악성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돋보기 이체'는 예금을 이체할 때 글자를 확대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센터'에서는 금융상품을 조회하거나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기존 지로납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 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의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적금'과 '우리 뱅크월렛카카오통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뱅크월렛카카오통장'은 뱅크월렛카카오 충전계좌로 지정하면 연 1.0%(50만원 이하)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ATM현금출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김민지기자 min98

# 금투협 차기회장 선거 D-7… 경쟁 치열

## "소통·규제완화·국제통" 3박자 후보에 무게

금융투자업권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 선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검정이 치열하다. 차기 금투협회장 후보 5명은 14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가린 뒤 이달 20일 최종 선거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정책당국에 금융투자업권의 요구를 잘 관철시키는 동시에 회원사와 원활히 소통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삼박자'를 잘 갖춘 인물이 중용되리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업계가 위기에 처한 만큼 국제적 업무능력으로 해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이 관건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3일 금투협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14일 5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평가가 이뤄진다.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자기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증권사와 운용사, 선물사, 신탁사 등 금투협 회원사 164곳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이번 금투협회장 후보로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정준 전 한양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회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중소형사의 표심을 잡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직전 선거가 열린 지난 2012년 중소형사의 막판 표심이 몰리면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박종수 현 협회장이 선출된 결과를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수장을 두루 거친 만큼, 감독기관과 정부와의 교감이 남다를 것이란 기대감을 받는다.

김기범 전 사장은 중소형사의 해외 특화시장 진출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중소형사의 연기금 풀 진입 기회 확대 등은 물론, 자산운용사와 선물사, 신탁사를 위한 개별 공약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 |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 전 사장은 특히 '자본시장'을 가장 중심에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소통과 함께 시장을 제대로 시장답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황성호 전 사장은 협회 주도로 '5년 주도 로드맵'을 사용해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황 전 사장은 협회장 3년 난임제를 약속하는 동시에 정부 소통과 협조 능력을 높이고 자율규제 영역 확대, 조직 효율성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준 전 한양증권 사장 역시 규제 완화와 중소형사의 자생적인 생존환경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운용 대표는 1990년대 외환위기(IMF)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중소형사 균형 발전,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황영기 전 회장과 김기범 전 사장, 황성호 전 사장의 '3파전'을 예상하는 분석이 많다.

박종수 현 협회장이 지난 임기 3년간 중소형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차기 협회장 자리에는 위기에 빠진 업계를 살릴 국제통이 이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 사장의 경우 한국외국어대를 나와 씨티은행에 입사한 뒤 창기리 대우증권 사장을 거쳐 대우증권에서 국제금융부장, 런던 현지법인 사장, 국제영업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을 두루 지냈다.

한편 투표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자산운용사의 결정에 따라 차기 금투협회장 자리가 좌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업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를 잘 이끌 만한 인물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수 현 협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 완료된다.

/김현정기자 hjk nl@metroseoul.co.kr

#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

## 보험출시 현재까지 '0'건… 공염불 전망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이 추진한 난임부부 지원 보험(이하 난임보험)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난임보험 도입을 12월까지 완료시키도록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난임보험의 보장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포함한 난임 관련 수술과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보장이 포함됐다.

보험 종류는 단체보험으로, 45세 이하의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난임보험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체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보장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축소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상품요율 검증을 마치고 현재 상품 판매를 위한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 가능성이 없는 정책성보험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출시를 유도했다. 하지만 MG·삼성·현대·더케이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 상품의 판매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 4대강 자전거길 개발에 따라 출시를 종용했던 자전거보험도 최근에는 판매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등 5대 손보사 기준 자전거보험 판매건수는 지난 2010년 1만7693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884건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가정폭력 4대악 척결 공약으로 출시된 현대해상 '행복지킴이보험'도 지난해 7월 판매 이후 현재까지 가입한 건수가 없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현재까지 현대해상이 유일하게 난임보험 인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민간에서 출시하는 상품인 만큼 정부 지원이 포함된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해 "난임상품을 기획할 때 민간보험사와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민간상품인 만큼 보장내용은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

**AIA생명 타깃 리크루팅 강화** AIA생명 한국지점은 타깃 리크루팅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대면채널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최대 리크루팅 실적을 기록한 AIA생명 레전드지점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IA생명 제공

# 연초 코스닥 전성시대… 핀테크주 '질주'

연초 코스닥 시장이 연일 강세다.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와 사물인터넷 등 IT주를 중심으로 거침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3일 닷새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570선은 유지했다. 전날 574.76으로 지난해 9월 570선을 넘어선 이후 3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571.00)했지만 560선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코스닥 랠리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단숨에 코스닥 대장주 자리에 오른 다음카카오는 대표적인 핀테크주로서 올 들어 주가가 15% 뛰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한국사이버결제와 다날, KG이니시스 등도 새로운 금융결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해 말보다 30% 가까이 뛰었고 다날은 20%, KG이니시스는 13%가량 상승했다.

코스닥발 핀테크 기대감은 코스피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9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주들도 연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인텔스, 코맥스, 모다정보통신 등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전날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5' 등의 영향으로 나란히 오르기도 했다.

/김현정기자

# 마힌드라 회장 "쌍용차 美 진출 적극 검토"

### 3년간 1조 투자… 매년 신모델 출시 예정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쌍용차의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티볼리 발표회에서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은 미국 자동차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그룹에서는 쌍용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유일 사장은 "미국 진출은 모든 자동차회사의 꿈이지만 경쟁이 어려운 곳"이라며 "1차 컨설팅 회사의 검증은 마쳤는데 언제 미국에 진출할지 아직은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단일 공장 수요가 5만대 이상 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한국 이외의 공장 증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 인수 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2013년에 800억원을 증자했으며 현재는 쌍용과 6개의 엔진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일 사장은 "보통 한 차종 개발에 3000억원이 든다. 3년이면 약 1조원이 드는 셈이다. 그 투자금액은 쌍용차 내부적으로 충당할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마힌드라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UV는 매년 한 대씩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장은 "제어맨은 2008년 출시했는데 이규의 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투자비가 많이 든다. 그러므로 신차 투입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볼리의 경우 디젤 엔진은 6월, 롱보디는 연말에 출시하며 중국에는 3월부터 수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해 러시아 사태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3만2000대 수준이던 것이 작년에 2만대 정도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유일 사장은 "작년에 1 달러당 32 루블인데 지금은 60 루블이 넘는다.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 물량을 줄일 예정이다. 중국 경기도 좋지 않다. 다행히 서유럽 경기가 좋아져서 수출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해고 노동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마힌드라는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쌍용차를 법정관리에서 졸업시킨 이유일 사장을 신뢰하므로 그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유일 사장은 "153명의 해고자는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다.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회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손익분기점 달성 관련 이유일 사장은 "2~3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오를 것"이라며 "신차가 출시되면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2015북미국제오토쇼]

## 현대차, 쏘나타 PHEV 공개

### 상반기 중 국내 선보여

현대자동차가 2015 북미국제오토쇼에서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와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 'HCD-15'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 독자 개발에 성공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현대차의 우수한 친환경차 기술력을 상징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트럭 스타일의 콘셉트카 HCD-15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차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한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쏘나타 PHEV)는 국산 최초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는 외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쏘나타 PHEV는 154마력을 발휘하는 누우 2.0 직분사(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시스템 최대출력 202마력을 구현했다. 9.8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차 모드만으로 22마일(미국 표기방식 연구소 자체 측정치, 이하 동일)을 달린다. 또한 쏘나타 PHEV의 연비는 ▲전기차 모드로 주행 시 복합연비 93MPGe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 시 복합연비는 40MP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쏘나타 PHEV를 소개한 마이크 오브라이언(Mike O'Brien) 현대차 미국법인(HMA) 상품기획담당 부사장은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최우선시하는 고객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와 배터리를 갖춘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는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내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신개념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 HCD-15 공개**

현대차가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인 HCD-15는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구매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생)를 겨냥한 콘셉트카다.

이날 HCD-15의 상품 발표를 맡은 마크 딥코(Mark Dipko) 현대차 미국법인 상품기획 이사는 "HCD-15는 기존 시장이 제공하지 못했던 기능과 사양 등을 통해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HCD-15는 뒷좌석 탑승 편의성을 향상시킨 수어사이드 도어, 루프와 적재함에 미끄럼 방지용 패드 등을 갖췄다. 또한 소형 CUV 수준의 비교적 짧은 휠베이스(축간거리)를 갖춰 정글이나 산악지대 등 험로에서의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HCD-15에는 190마력의 친환경 2.0 터보 디젤 엔진과 H-TRAC(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됐다.

특히 HCD-15의 커버를 장착해 적재함 내에 다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적재 물품의 크기에 따라 적재함의 길이를 최대 중형 픽업트럭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춰 기존 픽업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배기자

쏘나타 PHEV를 소개하는 정의선 부회장

[2015북미국제오토쇼]

## 쉐보레, '볼트(Bolt)' 내놨다

쉐보레(Chevrolet)가 12일(미국 현지시각) '2015 북미국제오토쇼' 프레스컨퍼런스에서 장거리 주행 순수 전기차 콘셉트 '볼트(Bolt)'를 공개했다.

새 순수 전기차 콘셉트는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볼트(Volt)와 스파크EV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1회 충전으로 321km 이상 운행할 수 있다. 3만 달러(한화 3288만원)의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미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자 개발됐다.

메리 바라(Mary Barra) GM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볼트 EV 콘셉트카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차량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GM이 전 세계 전기차 분야의 리더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트 EV 콘셉트카는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출퇴근용 주행을 등 최적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각각의 주행 모드에 맞춰 가속 페달 감도, 차고, 서스펜션 세팅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볼트 EV 콘셉트카는 크로스오버 형태를 기반으로 프런트와 리어 오버행을 줄였으며 5인승 이상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내외부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 첨단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를 적용,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번 콘셉트카는 볼트 EV 커넥트 앱을 이용한 첨단 IT 기능을 탑재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 셰어링 원격 제어와 카셰어링 시스템을 지원하며, 차량 하차 후 차량 스스로 주차 위치를 찾아 자동 주차 후 운전자에게로 소환이 가능하다.

/김태배기자

## 삼성전자 초고속 SSD 출시

삼성전자가 기존 외장 HDD보다 4배 빠른 SSD를 국내 시장에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고성능의 포터블 SSD T1(사진) 출시를 기념하며 오는 20일까지 삼성전자 온라인몰인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포터블 SSD T1은 기존의 크고 무겁고 느린 외장 HDD를 대체하는 새로운 차원의 외장 저장 장치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3차원 V낸드에 기반한 새로운 SSD 라인업이다.

특히 1테라바이트(TB)와 250/500기가바이트(GB) 등 모든 용량에서 기존 외장 HDD보다 4배나 빠른 연속 쓰기/읽기 속도(450MB/s)를 구현한다.

또 랜덤 읽기와 쓰기 속도는 각각 8000 IOPS(Input Output Per Second)와 2만 1000 IOPS로서 외장 HDD보다 읽기는 60배 이상, 쓰기는 100배 이상 빨라 최고급형 SSD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포터블 SSD T1은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5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 한겨울 때아닌 에어컨 격돌

## 삼성·LG전자 시장 공략 본격화
## 위니아·캐리어 "출시 시기 조율"

아직 한겨울이지만 전자업계는 여름철을 대비한 에어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에어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름 사냥에 나서면서 중견 중소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2015년형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하며 이달 중순부터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움직임을 보고 신제품 출시 시기를 조율중이다.

이는 에어컨이 단순히 실내 온도를 낮추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기청정, 제습 등의 기능을 갖추며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가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기 청정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11일 공개한 스마트에어컨 Q9000은 초미세먼지 PM10과 PM2.5 가스를 감지하는 '트리플 청정 센서'와 'PM2.5 필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청정도와 미세먼지 상태도 각각 나무 아이콘과 9~999 사이의 수치로 표기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압축기와 모터 효율을 높여 냉방속도를 전년대비 최대 20% 개선했고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절전 능력도 끌어올렸다. 실내 면적에 따라 스마트에어컨 Q9000의 가격은 287만9000~579만9000원이다.

LG전자는 스마트 기능과 두 개의 냉기 토출구를 갖춘 제품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두 냉기 토출구를 필요에 따라 바람의 강약, 방향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바람의 방향은 좌우로 최대 120도, 상하로 최대 50도까지 가능하며 두 개의 토출구 중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 에어컨 Q9000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이제는 듀얼 에어컨시대!
LG전자 LG WHISEN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

/사진=손진영기자 son@

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전제품과 대화하는 '홈 챗' 서비스를 적용해 '카카오톡'과 '라인'에서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LG 휘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어 예상 전기료를 측정할 수 있다. 가격은 330만~600만 원대다.

이에 대유위니아, 캐리어에어컨 등은 신제품 에어판매를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시기에 대한 윤곽은 잡혔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예약판매를 시작해 중소 중견 제조사들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예상판매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yps@metroseoul.co.kr

## CES 혁신상 'SUHD TV' 시판 언제?

### 삼성 2월, LG 2분기 내 :: 수천만원 대 가격 걸림돌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큰 주목을 받은 제품은 SUHD TV였다.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UHD TV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에서 'S'가 붙은 SUHD TV는 LCD TV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일반 LCD에 퀀텀닷(양자점) 필름을 덧입혀 색재현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색표현력 등 화질이 워낙 뛰어나 CES 혁신상을 받기도 한 제품이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TV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달 SUHD TV를 양산할 예정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장은 CES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2월 말께 삼성이 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삼성보다 다소 늦을 전망이다. 2분기 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출시와 관련해서도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을 내놓을 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자 라이벌 삼성과 LG의 SUHD TV 시장 기선권은 삼성이 쥘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가 CES 2015에서 공개한 SUHD TV
/연합뉴스

차세대 디지털 TV로 꼽히는 SUHD TV의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퀀텀닷 TV 글로벌 출하량은 올해 130만대에서 내년 500만대를 돌파하고 2017년 1200만대, 2018년 18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보급 확산의 걸림돌이다. 100인치대 SUHD TV 가격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40인치나 50인치 제품도 수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 TV는 양산 초기에는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패턴이 있는 만큼 1~2년 뒤에는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훈기자 pso@

## 삼성에서 취재하고~ 장학금 받고~

### 대학생 열정기자단·서포터즈 모집

삼성의 활동을 체험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삼성그룹이 2015년 상반기에 활동할 대학생 열정기자단 5기(10여명)와 대학생 서포터즈 5기(200여명)를 모집한다.

대학생 열정기자단은 삼성의 다양한 경영 활동과 임직원을 취재하는 프로그램.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미디어 삼성'을 비롯한 각종 사내 매체에 실린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삼성의 홍보·마케팅 방안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학생 싱크탱크 프로그램으로 매월 세미나와 삼성 계열사 견학 등을 진행한다.

삼성은 열정기자단에게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서포터즈에게는 수료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열정기자단과 서포터즈 활동우수자에게는 해외 사업장과 국외 전시회 등을 견학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열정기자단과 서포터즈 4기 대학생 6명이 현장을 다녀왔고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가전박람회인 IFA도 취재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해외 전지훈련 현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삼성 대학생 열정기자단·서포터즈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은 오는 30일까지 삼성의 영(Young)커뮤니케이션 포털 영삼성(www.young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승용기자

## 현대모비스 주니어 영어캠프 실시

현대모비스가 겨울방학을 맞은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중학생 자녀 25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5박 6일 일정의 '주니어 영어캠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주 '수안보 한화리조트'와 천안의 재능연수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부모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모비스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이 같은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이런 자녀교육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협력사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직원의 자녀들에게도 영어캠프에 참여토록 권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프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영어교육 전문 업체와 제휴해 원어민 13명, 한국인 전문 강사 13명 등 총 26명 강사진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예체능을 포함한 전 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또한 올해는 영어교육에 집중했던 예년과 달리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워크숍'이나 '장애 인식개선', '문화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미래 워크숍은 다중지능검사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 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장애 인식개선'은 아이들이 실제로 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문화공연'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오페라와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들 공연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혁수기자 hjmin@

# 갤럭시노트4 보조금 70만원?

## 일부 영업점 불법 지급… 중고폰 선보상도 우회 보조금 지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 제도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까지 들어가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11일 주말 사이 유명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사이트에는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최신 스마트폰이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20만~30만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노트4는 출고가가 95만7000원이고, 아이폰6 16G모델 출고가가 78만98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약 50만~70만원 가량 지급된 것이다.

이는 엄연히 이통사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난 제재 대상이다. 지난 아이폰6 대란 당시 유통점에 방통위가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해당 유통점에 대한 사실 조사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간 사실도 없고 지난 주말 상식을 벗어난 리베이트가 지급된 정황도 없다"며 "일부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이처럼 판매했을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이처럼 판매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도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수치를 볼 때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조사는 해 보겠지만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등 최근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많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서 거론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역시 우회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18개월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단말기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책정받아 선지급 받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고객 안내와 가입자 모집에 대한 불법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지펠 냉장고 할인 삼성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출시된 냉장고 15종을 대상으로 특가판매·포인트적립·사은품증정 등 행사를 한다.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는 매장 전시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삼성전자 제공

타이젠을 탑재한 삼성전자 스마트 TV /삼성전자 제공

## '앱' 품은 생활가전 IoT 잰걸음

### 정보 제공·원격 제어 기능 담아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앞두고 앱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가전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격 제어를 하는 등 단순한 수준이다. 그러나 모든 가전 기기들이 하나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IoT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에서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OS) '타이젠'을 탑재한 TV를 공개했다.

타이젠 기반의 삼성 스마트TV는 새롭게 진화한 사용자 환경(UI)을 적용해 조작을 더욱 간결하게 했으며 모바일 기기 연동 등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리핑 온 TV 기능은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 연동 서비스로 모바일 기기의 알람 설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TV가 켜지고 시간과 날씨와 사용자의 스케쥴 정보를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가전제품과 대화하는 '홈챗' 서비스를 13일 공개된 신제품 '듀얼 에어컨'에 적용했다.

사용자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을 통해 에어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 휘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에어컨을 원격 제어 가능하며 자가 진단, 에너지 사용량 확인과 관리, 필터 교체 주기, 월 예상 전기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 폭스바겐 골프 '2015 북미 올해의 차' 수상

### 현대 제네시스는 최종후보 올라 선전

폭스바겐 신형 골프와 골프 GTI가 '2015 북미 올해의 차(The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12일(현지 시간) 북미국제오토쇼 프레스데이의 개막 행사에서 발표된 이번 상은 현대 제네시스와 포드 머스탱, 폭스바겐 골프가 최종후보로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골프가 최종 승자로 기록됐다.

폭스바겐의 대표 베스트셀러인 골프는 이번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을 통해 기술혁신, 디자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형 해치백 시장의 벤치마크 모델임을 다시 한 번 인증했다.

북미 7세대 골프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생산전략 하에 탄생한 MQB(Modular Transverse Matrix 가로배치엔진용 생산모듈) 플랫폼에서 생산된 최초의 골프다. 최대 100kg 가벼워진 경량설계 디자인과 프리미엄 감성품질, 첨단 기술 등으로 혁신됐다.

또한 국내에서도 판매 중인 2015년 골프 GTI는 새롭게 설계된 차세대 직렬 4기통 1984cc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2.0 TSI)과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DSG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북미 올해의 차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기자단이 공정한 투표를 거쳐 그 해 가장 뛰어난 차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2015 북미 올해의 차는 12월 최종 후보 선정에 이어 이듬해 1월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에는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전문 기자단 75명이 투표했다.

미국 폭스바겐 그룹 아메리카 CEO 마이클 혼(Michael Horn)은 "폭스바겐 신형 골프의 수상 소식으로 2015년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이 상은 폭스바겐의 지난 성과와 오랜 노력을 증명해주며, 폭스바겐은 앞으로도 골프 라인업을 통해 브랜드의 미래를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재기자 fairw@

## 기지국 하나로 섬-육지 잇는다

### KT, LTE 신기술 시연

KT는 롱텀에볼루션(LTE) 신기술 '4안테나 기술(4T4R)' 시연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4안테나 기술은 별도의 중계장치 없이 하나의 LTE 기지국으로 최대 120km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최대 2배 증가시킬 수 있다.

KT와 노키아가 함께 개발한 4안테나 기술은 기존 LTE에서 활용 중인 2안테나 기술(2T2R) 대비 안테나 수가 2배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주파수 강도가 2배 이상 높아져 커버리지가 향상된다. 이는 현재 출시된 모든 단말에 적용할 수 있다. 또 향후 4안테나 기술이 적용된 단말이 출시되면 데이터 송수신 속도도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

이번 시연은 4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제주 새오름 기지국과 120km 떨어진 제주-전남 간 카페리 선상, 100km 거리의 청산도 등 두 곳에서 기존 단말기로 데이터 송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거리는 울릉도-독도 간 87.4km보다 먼 거리로, 선상과 청산도 모두 별도의 중계장치 없이 20Mbps 이상으로 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국내 최초로 실험실이 아닌 실제 외부 환경에서 검증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4안테나 기술의 넓은 커버리지 적용을 통해 해안 및 산간, 도서 음영 지역에 안정적인 속도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적은 기지국으로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지국 사이의 간섭이 개선되고 네트워크 구축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영기자

# 지금 UAE 패션업계는 '여풍 당당'

## 여성 디자이너, CEO 급증 -공무원 '투잡' 많아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카올라 빈 케디아

아랍에미리트(UAE) 패션 업계에 '여풍 시대'가 열렸다고 영국 BBC 방송이 최근 전했다.

두바이에서 2013년 패션 업체를 창업한 카올라 빈 케디아. 그는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차렸다.

빈 케디아는 "친구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어디서 샀느냐고 계속 물었다"며 "직접 만든 옷인데 모두 사고 싶다며 관심을 보여 창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빈 케디아는 두 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회사를 꾸렸다. 창업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현재 두바이와 카타르의 여러 상점에 의상을 납품하고 있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 패션 디자이너와 최고경영자(CEO)가 늘고 있는 추세다. 디자이너 사라 알 마다니는 "2010년에 내가 두바이에 회사를 차릴 때만 해도 여성 대표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느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다.

**◆창업자 10명중 3명은 여성**

두바이 자이드 대학이 조사한 창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UAE 창업가 10명 중 3명은 여성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UAE의 공공기관은 오후 3시를 전후에 업무를 마감하는데, 이때 공무원 여성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 개인 사업을 하는 이유다.

전통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핫마 알 모사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디자이너로 활동한다"며 "오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운영하는 이들 패션 업체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 의상을 선보인다. 다양한 제품 사진을 올려 온라인에서 고객의 반응을 먼저 살펴본 뒤 오프라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 디자이너는 "SNS로 의상을 빨리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부정적인 평가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먼 훗날 패션 회사의 CEO가 될 날을 꿈꾸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 사고 나면 저절로 튕겨나간다

### 에어버스, 신형 블랙박스 탑재 추진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상업용 항공기 최초로 저절로 튕겨나가는 블랙박스를 탑재할 전망이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튕겨나가도록 설계된 블랙박스를 자사 제작 항공기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술은 군용기에는 오래전부터 적용돼왔으며 상업용 항공기로는 에어버스가 최초다.

현재 에어버스는 유럽의 항공규제기구인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의 신형 블랙박스 탑재 움직임은 잇따른 대형 항공사고 때문이다. 주요 항공기 제작사들이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 회수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책 안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만 두 대의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와 한 대의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에어아시아 여객기는 최근 블랙박스를 발견했으나 지난해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는 아직도 블랙박스나 동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에어버스 측은 "자동으로 튕겨나가는 블랙박스 기술을 A380과 A350 모델에 적용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EASA에 요청했다"며 "소형 모델인 A330과 A320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uniyun@

**현대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 공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2015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의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가 소개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 해킹 마일리지로 무료항공권 구매

### 1만여 고객 계좌 피해

미국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졌다.

USA투데이는 지난달 미국 양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AA)과 유나이티드항공(UA)의 고객 마일리지 계좌가 익명의 해커들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커들은 해킹한 고객들의 사용자명(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도용해 무료 항공권을 받거나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항공 대변인은 "1만 개의 계좌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공격 대상이 된 계좌의 소유주들에게 e메일 공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도 "해커들이 마일리지를 도용해 무료 항공권 예약을 하거나 적립된 마일리지를 약 40개의 계좌로 옮긴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국明기자 lamline@

## 삼성전자 미국 특허 MS·구글 제쳤다

### 취득 건수 2위 ‥ LG전자도 9위에 올라

삼성전자가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IBM은 22년 연속 미국 최다 특허 등록 기업 기록을 세웠고 애플은 11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3일 미국 특허전문서비스회사인 IFI가 발표한 '2014 IFI 특허등록 톱 50'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총 4952건의 특허를 취득해 2위에 올랐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총 2122건의 특허로 9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두 기업이 나란히 미국 특허 취득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산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기술력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한 곳은 IBM이었다. IBM은 지난해 연간 총 7534건의 특허를 취득해 22년 연속 미국 최다 특허 등록 기업 명성을 유지했다. 구글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구글은 2013년에 11위였지만 8위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10위였던 애플은 11위로 순위가 밀려났다.

상위 10위권을 살펴보면 일본의 캐논과 소니가 각각 4055건, 3224건의 특허로 3~4위에 올랐다. 이어 MS(2829건), 도시바(2608건), 퀄컴(2590건), 구글(2566건), LG전자(2122건), 파나소닉(2095건) 순이었다.

미국 특허등록 상위 50개 기업 중 미국 국적이 19개로 가장 많았지만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이 차지했다. 일본은 18개 기업을 순위 안에 올리며 기술 강국임을 입증했다.

/장윤희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용감한 NEWS
충격!

특별기자회견
#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 새로 나온 책

### 1인 창업에서 기업 경영으로

후지이 카오루/첫페

일본 최고의 저먼기 업계 대표이사 직접 면 전문점을 운영하며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가 전 세계 경영인의 멘토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이론을 자신의 현장 경험과 접목시켜 소개했다. 업종 선택과 입지 선정, 매장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인력 고용 관리, 자금 운용, 여유 자금 확보 등 사업을 일으키고 운영하는 방법은 물론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키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 우연의 과학

다케우치 케이/은출판

우연을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출근길에 놓친 버스 때문에 뒤엉킨 하루의 일상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큰 재난을 만난다면 아무리 헤아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즉 순수한 우연을 견디지 못하고 점집을 찾고 종교에 의지한다. 평생 수리통계학을 연구한 저자 다케우치 케이(도쿄대 명예교수)는 "확률은 우연성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라며 확률론에 근거해 우연에 대해 풀어나간다.

### 봄드독의 제주일기

정우열/책익

올드독이라는 캐릭터로 생활만화를 그려온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저자 정우열이 2년간 머물면서 제주의 매력 실은 날날이 해부한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던 저자는 막연하게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진다. 이왕이면 하와이 같은 곳. 현실적인 조건을 생하다 제주도를 거주지로 정했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 덜컥 계약을 했다. 유니클로·자라 같은 옷가게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도시남자가 느낀 제주는 그래도 즐겁다.

### 떠나는 이유

범작/블랙스

여행으로 삶을 촉촉하게 든 모토로 여행에 필요한 이휴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길 풀었다. 방랑이어행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기록이다. 그는 보기보다 듣기, 찍기보다 쓰기·그리기를 권한다. 사소한 것도 내 느낌을 간직하고 기록하다 보면 어떤 작가 태원준의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리는 순간"도 새로운 여행이 될 수 있고 "카페의 1분"마나보도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한다.

### 마리 앙투아네트 운명의 24시간

나카노 교코/책봄

혁명을 피해 달아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보냈던 위태로운 24시간을 담았다. 황실의 공주로 태어나 단두대에서 처형될 때까지 화려하고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앙투아네트. 이 책은 도주를 위해 가정교사로 위장했던 앙투아네트의 긴박했던 24시간을 골기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연과 저자의 역사학적 해석을 적절하게 녹여냈다. 또 당시 상황을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생생한 묘사로 채워 넣어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구성됐다.

/박지원기자

# 가슴 뭉클한 감동이 다가온다!

## 메마른 시대의 필독서 '우동 한 그릇'

출간 당시 감동에 굶주렸던 현대인에게 '감동 연습'을 시켰던 '우동 한 그릇'이 새 옷을 입고 독자들 앞에 나섰다.

이야기는 섣달 그믐날 밤,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가난한 세 모자가 들어와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며 시작된다. 송구한 표정으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는 모자를 보며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티 나지 않게 우동을 더 담아 내주는 주인과 우동을 나눠 먹으며 마음을 나누는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서 진정한 배려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청조사

또 14년이란 시간이 지나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북해정에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 그릇의 우동을 주문하는 모습에서는 눌러 두었던 눈물이 터지며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아울러 '우동 한 그릇'의 감동을 잇는 두 번째 단편은 '마지막 손님'. '춘추암'이란 과자점에서 일하는 열아홉 소녀 게이코를 통해 장사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받는 신뢰의 작업이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

눈물과 정서가 메마른 시대, 가난을 추억하는 세대와 가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가 함께 하는 지금 이 뒤조하이지만 소박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윤재성기자 bsou38@metroseoul.co.kr

**책속 한 줄** 알코올 알레르기 여행자의 와인 사랑

나는 '알코올 알레르기'라는 신기한 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술과는 아주 잘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여행을 즐기던 어느 날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완전한 무릉도원의 세계라고 해야 할까. 우연이었지만 와인은 무미자연에 이르는 행복을 내게 가져왔다. 그렇게 알코올 알레르기 여행자의 와인 사랑은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프랑스'(박정은/상상출판) 중- /윤재성기자

## "창의적인 신인작가 발굴합니다"

###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교보문고는 SBS 콘텐츠 허브 자회사 '더스토리웍스', 출판사 '다산북스'와 함께 '제3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내 창작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와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신인작가를 선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상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eBook과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드라마화 등이 검토된다.

출품작은 A4 10매 내외의 시놉시스와 함께 A4 30매 이상 분량의 소설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완성 분량은 원고지 800~1200매 분량의 장편소설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다.

올해에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 사이에 멘토링 제도를 신설했다. 본심 선정작 연계 전 전문가들로부터 투고 원고에 대한 멘토링을 받은 후 정식 연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는 출판사 문학 편집자, 드라마 기획 PD 등이다.

/김수정기자

## "생각하기를 멈출 때 더 지혜로워진다"

**화제의 책**

### 거북이 마음이다

가이 클랙스턴/황금거북

'거북이 마음이다'의 저자는 생각하기를 멈출 때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한다. 더 많은 자료, 더 나은 해결책 찾기를 그만두고 잠시 쉬는 것이 왜 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왜 덜 부지런해야만 더 지적인 것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성실하고 목적 지향적인 인지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게으름 피우기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정신영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빠르고 정확한 이성을 신봉했던 서구문화가 어떻게 병이 들었으며 느긋한 심층마음이 어떻게 이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 가이 클랙스턴은 두 가지 생각의 길을 제시한다. 즉 토끼처럼 빠른 두뇌가 수행하는 분명하고 능률적인 생각과 거북이처럼 느린 마음의 명상적인 생각이다.

저자에 따르면 진리를 향한 어설픈 접근과 느린 앎, 서서히 스며드는 배움이야말로 통찰력 있는 지혜를 얻는 효과적인 길이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겠지만 일단 거북이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순간 당신의 삶과 세계는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김수정기자 ksj0015@

# 신라스테이에서 스마트한 겨울 나기

### 신라스테이 역삼의 3가지 신년 패키지

신라스테이(Shilla Stay 사진) 역삼이 신년을 맞아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했다.

신년의 설렘을 담은 'Warm Winter' 패키지는 호텔 신라 수준의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신라스테이 스페셜 멤버로 구성돼 있다. 스페셜 혜택에는 신라스테이 베디베어와 아베다 핑크리본 에디션 핸드크림을 포함하고 있어 연인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패키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세금 별도)은 주말 기준 15만9000원부터다.

또 친구들과의 즐거운 신년 의 파티를 계획한다면 '레이디스 파티 나잇(Lady's party night)' 패키지가 어울린다.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조식 2인, 클럽 옥타곤 입장권 2매 등이 제공된다. 클럽에서 신나게 파티를 즐긴 후 호텔로 들어와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조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여행기자가 직접 경험한 독특한 여행 이야기와 여행을 더욱 즐겁고 똑똑하게 즐길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닥치GO 여행-시즌2' 2권이 증정된다. 가격(세금 별도)은 주말 기준 22만9000원부터다.

아울러 즐겁게 식사를 즐기며 도심 속 호텔에서의 편안한 1박 2일 여행을 원한다면 '고메 다이닝(Gourmet Dining)' 패키지를 추천한다. 신라 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 모닝 뷔페와 디너 뷔페를 즐길 수 있다. 모닝 뷔페에는 신선한 샐러드 및 갓 구워낸 크로아상 등이 준비되며 저녁에는 대게와 조개 등 풍성한 메뉴가 마련된다. 특히 뷔페 이용 시 제공되는 코바(Cova) 커피는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로 이탈리아 밀라노 코바에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고 커피 장인의 수작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하는 최고급 커피다. 패키지 가격(세금 별도)은 주말 기준 26만9000원부터다. 문의 (02)2230-3000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세계 아웃도어 시장서 '신 한류' 일으키겠다"

### 블랙야크, 미국 브랜드 '나우' 인수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나우(nau)를 인수하고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강태선(66·사진) 블랙야크 회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본좌'를 떼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아웃도어 시장에서 신 한류 바람을 일으켜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야크는 2013년 가을부터 나우 인수를 준비했으며 지난해 말 나우 측과 지분 100%를 1500만 달러(약 162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나우는 미국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로 나이키, 파타고니아,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 개발자들이 함께 지난 2007년 창립한 회사다.

친환경주의를 바탕으로 도시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이 브랜드는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나우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나우'의 대표이자 블랙야크 글로벌 사업본부 강준석 이사는 "북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잠재력이 높은 아웃도어 시장"이라며 "이에 맞는 진출 전략으로 현지 파트너십 체결과 브랜드 인수 등을 오랫동안 계획해 왔다"고 설명했다.

블랙야크는 이번 나우 인수가 블랙야크의 북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랙야크는 아시아, 유럽, 북미 세 대륙을 이우르는 트라이앵글 전략을 발표했다.

강 이사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선보일 '글로벌 컬렉션'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 매장을 열어 유럽 전역으로 유통망을 최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선 회장은 "아웃도어라는 말 그대로 문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제 블랙야크는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을 거쳐 히말라야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크로드'를 개척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다양한 혜택이 팡팡!

### 스탠포드호텔 서울, 신년 이벤트 선봬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 서울이 양띠 해 고객과 직장인 등을 위한 신년 이벤트를 다음 달 28일까지 선보인다.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카페스탠포드를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는 숯불에 구운 양갈비 꼬치가 제공된다. 또 양띠 해 고객은 50% 할인된 가격에 카페스탠포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중 점심시간에 방문한 직장인은 1월 한 달간 월요일에 한해 1만9800원 특가에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주중 저녁에 6인 이상 예약하면 셰프의 추천 요리가 서비스된다.

아울러 패밀리 고객은 주말에 10인 이하로 가족 모임을 하면 전체 금액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6016-0080 /황재용 기자



겨울엔 따뜻한 털모자 1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루디장고' 스타일의 핸드메이드 털모자를 소개하고 있다. 총 가지 색상으로 판매되는 이 모자는 아크릴 원사가 아닌 100% 울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

# 패션·뷰티업계 '문화 마케팅' 활발

### 구매 시 영화 티켓 증정

뷰티·패션업계가 새해를 맞아 '문화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제품 구매 시 영화 혹은 뮤지컬 티켓을 증정, 일상에 지친 소비자들의 문화생활을 돕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스킨은 25일까지 '한스킨 감성 스킨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티켓을 나눠준다.

한스킨 공식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공유한 뒤 공유한 URL과 함께 한스킨 '바이오 씨트 멜팅 리무버'가 어울리는 뮤지컬 여주인공 이름을 댓글로 달면 된다.

유니클로는 '키즈 포켓몬 룸웨어' 출시를 기념해 유니클로 명동중앙점과 강남점에서 '키즈 포켓몬 룸웨어' 구매 고객에게 영화 예매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키즈 포켓몬 룸웨어는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와 협업해 만든 어린이용 실내복으로, 푹신한 소재로 만들어져 실내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화장품 전문 멀티스토어 롭스는 16일부터 롭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7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맑음 콘서트' 입장권을 선물한다. 다음 달 7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롭스에 입점한 형가리 온천수 화장품 '오모로비짜' 모델인 이승기와 메이크업 브랜드 '카코' 모델인 에일리 등이 참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공연은 물론 마술쇼 등 다채로운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 지긋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질환!!

## 믿음 가고 신뢰 주는 명품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앓아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허리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두려워 수술을 기피하는 추세다. 더욱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광고하지만 정작 병원은 환자 맞춤형 시술이 아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충원하기 위한 값비싼 무리한 시술을 시행한다.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46세 직장인 박모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다. 평소 허리가 불편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온 박씨는 무리하게 일한 다음 날 심한 요통과 함께 다리에 통증을 느껴 유명 연예인을 홍보모델로 하는 강남의 유명 병원에 내원했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박씨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꼬리뼈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은 박씨에게 담당 의사는 호전 없어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박씨는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찾았다. 조성태 강남조이스병원 원장은 박씨의 상태를 급성 추간판 탈출증 중기와 말기 사이로 진단하고 신경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박씨의 상태는 호전됐고 통증도 사라졌다.

조성태(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원장과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가수 휘성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실제로 조 원장과 강남조이스병원의 다른 원장들은 타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잉 치료와 수술을 지양한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주파 열 치료술 등 간단한 시술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역시 95% 이상이며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시술 영상을 보며 병변 부위에 고주파를 위치시켜 치료하는 방법이다. 1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는 간단한 치료로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돼 크기가 감소되고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동시에 시행되는 신경 치료술은 특수 제작된 주사기를 이용해 병변 부위에 약물을 투입해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이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기도 했으며 Mnet '댄싱9 시즌2'의 지정병원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조 원장은 "강남조이스병원은 무리한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수술 치료 시스템을 연구·발전시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며 "척추 전문 병원 중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값비싼 꼬리뼈 신경 성형술 대신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검증된 신경 치료술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함께 의사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서울대점 (02)875-2200, 유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강서점 (02)26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가족과 힐링스파 여행 떠나세요

### 강강술래, 리솜스파캐슬 입장권 경품 증정

새해 첫 여행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기휴가도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리솜리조트와 함께 온 가족과 스파·온천사우나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새해맞이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31일까지 휴게이지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서울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입장권을 증정한다.

천천향은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사우나)가 매일 공급돼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성인병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마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l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대용량(500ml-5봉·15인분)과 소용량(350ml-5봉·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박스를 55% 할인된 3만6600원에 판매한다.

또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할인), '건강가득세트(갈김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1월 한달 간 신분증을 소지한 입대 고객, 눈썰매장·스키장 티켓을 지참한 고객에게 냉면 상품권(1매)을 무료 증정한다(중복적용 불가).

/박지원기자 [illegible]

## 겨울방학, 목소리 건강 챙기세요~

### 교사·학생 방학 이용해 평소 놓치고 있던 목소리 체크해야

방학은 휴식도 취하고 취미생활도 갖는 등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기에 적기다. 평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건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교사와 학생들은 학기 중 놓치고 있던 목소리 건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매일 목을 사용하는 교사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등 음성혹사증후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음성혹사증후군은 선천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과도한 발성습관으로 생기는 음성질환이다. 따라서 쉰 목소리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통증과 이물감 등에 동반된다면 후두내시경을 이용한 음성기능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또 학생들은 성대결절과 변성발성장애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이의 독이한 목소리를 변성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때의 목소리는 평생 목소리를 좌우하는만큼 방학을 이용해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가 'ㄹ'을 'ㄷ'으로 발음하는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ㅅ'을 'th' 소리로 내는 등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지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음성질환에 노출됐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1~2회의 음성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방학 동안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성대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철민 프라나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제로 방학기간에는 평소보다 교사 환자가 10% 정도 늘어난다"며 "평소 목소리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 "내 청춘은 뜨거웠다"

미스터백 야심남 **정석원**

백지영 남편…"내가 부족하니 당연"
"결혼 후 연기자로서 책임감 생겨"
반듯한 이미지…"배우 오래하고파"

배우 정석원(30)은 2013년 가수 백지영과 결혼한 이후 MBC '미스터백'(2014)을 통해 처음 드라마에 출연했다. 1년여 만에 연기를 한 그는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결혼 이전보다 진지하게 접근하죠. (가족이 생겼으니) 돈도 돈이지만 시청자를 향한 책임감도 느껴요. 예전에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젠 캐릭터와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저는 1차원이었어요. 그런데 '봄날은 간다'라는 연극을 하면서 고차원적인 작업을 해보니 몇 시간 동안 다시 하나를 상상하며 연기했죠. 지금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왜'라는 의문도 품게 됐습니다."

정석원은 배우로서 대표작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백지영의 남편, 스타 부부로 더 주목 받는다. 이에 대해 그는 "어쩔 수 없다"며 "내가 부족하니까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기를 시작한 지 6년 됐어요. 제가 보여준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슈 되는 건 당연해요. 더 열심히 작품을 많이 해야죠. 아까 말한 책임감에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남자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죠. 목표를 높게 잡았어요. 못 이루더라도 그 밑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스터 백'의 정이건은 회사 경영에 욕심을 내는 야심찬 남자다. 악역을 담당하며 극 중심에서 갈등을 유발했다.

"당초 20부작이었는데 16부작으로 줄었어요. 정이건의 숨겨진 발톱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했죠. 드라마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사랑, 가족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잖아요. 정이건은 연결 고리라고만 생각하고 연기했죠.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맞춰줘야 하는 인물이니까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석원의 이목구비는 남성적이다. 곡선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이미지다. 작품에서도 반듯하고 각진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촬영을 앞두고 있는 영화 '대호'에서도 일본군 소좌 류 역을 맡았다. 호랑이와 사투를 벌이는 냉혈한이다. 그러나 그는 "흐물흐물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학창시절엔 항상 들떠 있었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면 풀어진 역할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강하긴 하죠. 예전보다 유해지긴 했지만요. 제 청춘은 뜨거웠죠. (웃음) 중학교 땐 짝두기 머리하고 은반지 끼고 금목걸이하고 다녔어요. 선생님께 많이 맞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웃기다고 해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이라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복학생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항상 비서, 키다리아저씨 같은 것만 했잖아요."

그는 올해 서른 살이 되면서 배우에 대해 정의 내렸다.

"전달자, 메신저,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예전엔 무술감독이라는 꿈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재미 있는 이야깃거리를 관객에게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요. 계속 오래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웃음) 계속 변화하고 싶고요. 달라지는 만큼 또 다른 작품 만나서 시청자와 함께 공유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전효진기자

사진/한준희(와이드엔터테인) 디자인/박은지

star bag

## 부동산 불법취득 사실 아냐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한예슬의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 받았다"며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일시 몰라 발생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지누션 '꿈꾸는 라디오' 콘서트

지누션이 MBC FM4U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MBC '무한도전-토토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출연 이후 두 번째 무대로 기대가 높다. 공연은 16일 저녁 상암 MBC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다.

## 이연희 묘령의 여인으로 변신

배우 이연희가 오는 2월 개봉하는 영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포스터를 통해 묘령의 여인으로 변신했다.

이연희는 주인공 김민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혼을 빼놓는 의문의 여인 히사코 역을 맡았다.

팜므파탈 캐릭터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종국 '힐링캠프' 출연 입담

가수 김종국이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엘앤컴퍼니엔터가 13일 밝혔다.

김종국은 12일 녹화를 마쳤으며 촬영분은 오는 26일 방송된다. 소속사는 "김종국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있어 출연 초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 정우·한효주 '달달한 커플'

## '쎄시봉' 속 연인으로 다정한 호흡 과시

배우 정우(사진 오른쪽)·한효주(왼쪽)가 영화 '쎄시봉'(감독 김현석)으로 커플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했다.

13일 '쎄시봉' 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우는 "평소 한효주의 작품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봤을 정도로 팬이었다. 누구보다 함께 하고 싶었던 한효주와의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효주도 "정우는 내게 영감을 주는 배우다. 오근태 그 자체가 돼준 정우 덕분에 나 역시도 민자영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우와 한효주는 '쎄시봉'에서 오근태와 민자영 역으로 커플 연기를 펼쳤다. 무교동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아릿한 순애보를 이어나가는 인물들이다. 함께 공개된 스틸에서는 연인으로 변신한 두 배우의 다정하고 편안한 호흡을 엿볼 수 있다.

'쎄시봉'은 그 시절 젊음의 거리였던 무교동을 주름잡았던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배경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명의 뮤즈와 잊지못할 가슴시린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영화다. 오는 2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 콜걸이 된 클로이 모레츠

## '더 이퀄라이저'서 파격 연기 변신

할리우드 차세대 스타 클로이 모레츠(사진)가 영화 '더 이퀄라이저'에서 콜걸로 파격 변신한다.

1997년생인 클로이 모레츠는 다섯 살부터 광고 모델 활동을 시작해 배우로도 실력을 다져온 배우다. '500일의 썸머' '킥 애스' 시리즈 '렛 미 인' 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에 출연해 섬세한 감정 연기로 주목을 받았다.

아역 스타에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 중인 클로이 모레츠는 '더 이퀄라이저'에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콜걸 테리 역을 맡았다. 그는 "처음 연기하는 콜걸 역할을 미화하거나 솜사탕처럼 가볍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콜걸이라는 직업 자체보다 테리라는 인간에 중점을 두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더 이퀄라이저'는 낮에는 평범한 마트직원이지만 밤이 되면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심판자로 나서는 로버트 맥콜(덴젤 워싱턴)의 활약상을 그린 액션 영화다.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 '강남 1970' 亞·북미 13개국 개봉

이민호·김래원 주연의 영화 '강남 1970'(감독 유하)이 아시아 지역에 이어 북미 지역까지 총 13개국 개봉을 확정했다고 13일 배급사 쇼박스 미디어플렉스가 밝혔다.

쇼박스에 따르면 '강남 1970'은 오는 29일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에 이어 30일 대만에서 개봉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2월 중 개봉 예정이다. 태국과 홍콩은 2월 5일, 미국과 캐나다는 2월 6일 개봉을 결정해 한국과 거의 시간차가 없이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유럽 배급사들의 관심도 높다.

쇼박스 측은 "다음달 5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로피언 필름 마켓에서 프리미어 상영과 함께 유럽 세일즈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남 1970'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작품이다.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 지독한 순혈주의의 '웃픈' 드라마

film review

## 하정우의 두 번째 감독작…안정감 있는 연출 '눈길'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허삼관

피는 물보다 뜨겁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뜨거운 피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혈주의. '허삼관'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를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순혈주의자인 가장의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로 담아낸 가족 드라마다.

주인공 허삼관(하정우)에게 피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다. 한국전쟁의 끄트머리에 접어든 1953년, 육체노동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허삼관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 허옥란(하지원)을 아내로 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 번 돈으로 허옥란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한다.

'허삼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피다. 허삼관은 피 때문에 웃고 운다. 피를 팔아 만든 가족을 통해 누리던 행복은 자신의 가족 사이에 '더러운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산산조각난다. 믿음직스러웠던 첫째 아들 일락(남다름)이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은 지독한 순혈주의자인 허삼관의 속마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 가까운 허삼관의 모습은 어른스러운 아들 일락의 모습과 대비되며 '웃픈(웃기고 슬픈)' 감정을 전한다.

영화의 원작인 중국 소설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는 국공 합작과 문화 대혁명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배경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뀜으로 인해 원작이 지닌 역사적인 맥락까지는 담아내지 못한다. 원작보다 가족 이야기가 부각된 것 또한 각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처럼 보인다.

하정우 감독은 두 번째 연출작인 '허삼관'에서 보다 안정적인 연출을 보여주는데 신경을 쓴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끄러운 영화 구성에서 그런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웃음이든 눈물이든 제대로 된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1월 14일 개봉.

# 중국 극장가 휩쓰는 '20세여…'

## '수상한 그녀' 리메이크…개봉 4일 만에 200억원

한중 합작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이 중국 개봉 4일 만에 박스오피스 매출 1억2235만 위안(한화 약 214억원, 중국 엔터테인먼트 리서치 사이트 엔트그룹 기준)을 기록했다. 역대 한중합작 최고 흥행 영화인 '이별계약'의 개봉 주 박스오피스 매출(7066만 위안)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20세여 다시 한 번'은 CJ E&M이 '이별계약'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한중 합작영화다. 지난해 1월 개봉해 865만명의 관객을 모은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작이다. CJ E&M과 중국의 천진세기락성이 기획·투자·제작을 맡았으며 C2M, 화처, 미디어아시아가 공동으로 투자했다.

기존의 한중 합작영화는 성공한 한국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특정 국가만을 메인 시장으로 놓고 기획됐다. 반면 '20세여 다시 한 번'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양국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공동 기획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CJ E&M은 2013년 초 '수상한 그녀'의 투자배급을 참고하면서 이미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공동 기획에 착수했다.

CJ E&M 영화사업부문 이기연 중국투자배급팀장은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같은 유교권 국가에서는 울림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합작영화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했다"고 기획 배경을 밝혔다. /장병호기자

2011년도 건전음주를 위한 광고 공모전 수상작 (대상)

# 2015년에도 절주하는 당신이 챔피언 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량에 맞춰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술자리 문화의 선두주자 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보건협회

# 회삿돈 꿀꺽 코코엔터 김우종 사기혐의까지

## 유승우·정성하 '두 소년의 만남'

### 신곡 '테이크 마이 핸드'서 호흡

가수 유승우(사진)가 기타리스트 정성하와 손잡았다.

유승우는 13일 정오 디지털싱글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노래에서 처음으로 R&B 장르에 도전했다. '테이크 마이 핸드'는 스윙 리듬의 그루브한 힙합 비트에 느린 템포의 R&B 멜로디가 더해진 곡으로 감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올해로 19세가 된 유승우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의 설렘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이번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 8억 건 이상을 기록하며 '천재 소년 기타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정성하가 기타 세션에 참여해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지은 기자

### 아내와 함께 프랜차이즈 투자금 빼돌린 혐의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공동대표 김우종(52)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모(42·여)씨가 사기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내 한 모(52)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씨는 고소장에서 자신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인 김 씨 부부가 자신의 투자금 액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씨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 이를 받아들여 총 5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이중 3억1200만원만 프랜차이즈 업체 주주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렸다. 또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김 씨가 신설한 법인은 그의 부인 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사이버머니 중개 회사로 알려졌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은 윤 씨는 지난해 10월 김 씨 부부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씨는 주주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해외로 도주했고 김 씨도 코코엔터테인먼트의 공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다.

앞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 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으나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한편 개그맨 김준호(사진)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대희, 이국주, 김준현, 박지선 등 유명 개그맨 40여 명이 소속돼 있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경영난에 처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소속 연기자 대부분과 계약을 해지했다. 매니지먼트와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들도 퇴사했다. 현재 코코엔터테인먼트엔 김준호 공동대표와 일부 경영진만 남아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온라인 화 이슈**

## 이진 "핑클 재결합? 아직 정해진 것 없다"

1세대 걸그룹 핑클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이진(사진)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핑클 컴백에 대해 이진의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끼리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2일 SBS '힐링캠프, 좋지 아니한가'에서 MC들은 세 멤버를 맞이 지인들을 초대했다. 이날 성유리는 옥주현을 스튜디오로 불렀으며 이효리와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이효리와 통화를 마친 성유리는 "마치 어제 통화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성유리는 옥주현과 함께 이효리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효리는 "오열했다고 들었다"며 "나도 울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듣던 옥주현 역시 눈물을 보였다. 옥주현은 "그냥 눈물이 난다"며 핑클 시절을 추억했다.

이날 방송에선 멤버 간 불화설 등의 소문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며 핑클 재결합에 팬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정지은 기자

##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다이어트 선언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사진)이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12일 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시간 후부터 다이어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배고파서 이것만 딱 마지막으로 먹을게요. 진짜"라는 글과 함께 설렁탕 사진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가인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허삼관' VIP 시사회에 참석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가인은 이전의 마른 몸매와 달리 체중이 늘어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사진호경

## 정용화 '4人4色' 콜라보

### 솔로앨범서 양동근·버벌진트·윤도현·임준걸과 호흡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아래 사진)가 솔로 앨범에서 4명의 아티스트와 호흡을 맞춘다.

정용화는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첫 번째 솔로 앨범에서 양동근(YDG), 버벌진트, 윤도현, 임준걸과 함께 작업했다.

그는 양동근과 '마일리지', 버벌진트와 '원기옥', 윤도현과 '추억은 잔인하게'를, 중화권 가수 임준걸과는 '체크메이트'를 불렀다. '체크메이트' 가사는 한국어·중국어·영어로 이뤄져 있다.

정용화와 임준걸의 인연은 2013년 씨엔블루 월드투어 블루문 대만 공연에서 시작됐다. 이후 각종 시상식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두 사람은 '체크메이트'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호흡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한편 지난 9일 선공개한 '마일리지'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조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마일리지'는 웨이보 이용자들이 선정한 실시간 신곡 순위에서 1위, 쿠고우 한일 신곡차트 1위, 시나닷컴 핫뮤직차트 2위 등에 올랐다.

/탁진현기자

# 여자 래퍼들의 서바이벌 게임

### 제시·지민·타이미·치타 등 Mnet '언프리티 랩스타' 라인업 화려

제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여자판이 탄생했다. 1차 라인업 4명만이 공개됐지만 그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케이블음악채널 엠넷(Mnet)은 신규 힙합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를 만들어 2개월 출격시킨다. 경쟁을 펼칠 선수는 총 8명이다. 공개된 1차 라인업에는 제시, 지민(AOA), 타이미, 치타가 이름을 올렸다.

제시는 2005년 제시카 H.O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힙합 그룹 업타운의 객원 보컬로 활동했다. 당시 '제2의 윤미래'로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에일리, 효린과 함께 폭발적인 무대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타이미

걸그룹 AOA의 리더 지민은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는 드물게 현역 래퍼들도 인정하는 실력파다. 직접 랩 작사에도 참여해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쇼미더머니 출신으로 실력이 검증된 타이미와 치타도 합류했다. 1분에 160박자를 넘는 랩을 구사하는 타이미는 2004년에 네끼라는 예명으로, 2009년에 이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졸리 브이와의 '디스전'으로 화제를 모았다.

치타는 2010년 블랙리스트의 멤버로 데뷔했다. 당시 '쇼미더머니' 시즌1에서 폭발적인 랩과 신선한 무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얼라이브 소속으로 지난해 6월 솔로 앨범 '치타 앳센츠'를 발매했다.

타이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요즘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미 보장하니 기대 많이 해라"며 "우리 치타(?)까지 마라"는 당부의 말을 전해 기대를 높였다.

지민 / 치타

이런 가운데 나머지 4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쇼미더머니3 출신으로 기대되는 래퍼로는 육지담과 키썸이 있다. 아울러 자타공인 실력파 여성 래퍼 졸리 브이의 출연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쇼미더머니'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방송된다. 매 회 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힙합 프로듀서들이 신곡을 발표하면 8명의 선수들은 녹음 참여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

## '프랑켄슈타인' '벤허' 창작뮤지컬 저력 보일까?

### 충무아트홀 "자체 콘텐츠 제작·상업화 지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사진)이 다시 돌아온다.

'프랑켄슈타인'은 충무아트홀이 자체 제작한 뮤지컬이다. 지난해 더 뮤지컬 어워즈 9관왕에 오른 쾌거를 이뤘다.

13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희철 본부장은 "지난해 초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프랑켄슈타인' 재공연을 소개했다.

이어 "이달과 내달 중 일본 제작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일본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무아트홀은 창작 뮤지컬 발전과 대안 제시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자체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상업화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충무아트홀의 사업 방향의 상징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연된다.

뮤지컬 '벤허'는 충무아트홀이 '프랑켄슈타인'에 이어 집중 제작 중인 대형 콘텐츠다. 내년 공연 예정인 '벤허'는 5년 동안의 기획 기간을 거쳤고 사전 제작을 시작한 상태다.

김희철 본부장은 이날 "'프랑켄슈타인' '벤허' 모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라며 "그런 작품을 위주로 2차 창작물을 제작해 그 자체가 글로벌 아이템으로써 전세계와 교류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작비 부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50억~60억을 '벤허' 제작비로 생각 중이다. 충무아트홀 자체 투자만으로는 여력이 없다"며 "다양한 파트너와 연계할 방침이다. '프랑켄슈타인'도 충무아트홀이 40%, SBS 인터랙크 KT가 나머지를 공동 투자했다. 예정된 창작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ssenh0916

---

## '초당' 입맛 전현무 '수요미식회' 진행

### tvN 새 예능프로 "대중 입맛 대변할 것"

방송가 대표 '초딩 입맛'으로 알려진 전현무(사진)가 음식 토크쇼를 진행한다. MSG에 길들여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해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겠다는 각오다.

tvN 새 예능프로그램 '수요미식회' 제작발표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출을 맡은 이길수 PD와 전현무·김희철·김유석·강용석·박용인·홍신애가 함께 자리했다. 김희철과 함께 메인 MC를 맡은 전현무는 맛집 또는 먹방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현무는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의 의도된 주문이 전혀 없다. 호불호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음식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여긴 별론데?'라고 하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미식회'는 맛집을 찾는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식당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맛집이 아니더라도 해당 식당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디든 간다는 게 제작진의 생각이다.

'먹방' 신을 대신해 사람과 시대적 분위기, 음식에 깃든 역사 이야기가 프로그램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출연진 외 전문 평가단 7인도 함께한다.

'흑역 잔혜'으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전현무의 발탁은 그래서 더 의외였다.

전현무는 "나는 맵고 짜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한다. 고품격 미식 토크쇼에 나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같은 사람이 시청자 대부분에 속할 것"이라며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자는 게 철학"이라고 고백했다.

/김학철기자

# 한국, 아시안컵 8강 확정했지만…

**남태희 하트 세리머니** 13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에서 남태희가 선제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쿠웨이트전, 1-0 힘겨운 승리 - 슈틸리케 감독 "더 이상 우승후보 아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쿠웨이트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8강행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대표팀을 이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 대표팀은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전반 36분에 터진 남태희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그러나 이날 한국은 '약체' 쿠웨이트가 상대였음에도 주전급 선수들의 예상 밖 부상과 감기 증세로 인해 힘겹게 승리를 챙겨야 했다. 이청용(볼턴), 손흥민(레버쿠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이 부상과 감기 증세로 경기에 빠졌다.

대표팀은 전반 초반 공격의 활로를 뚫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 24분에는 쿠웨이트의 압둘라지즈 알렌지가 내준 전방 패스를 최종 수비수인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흘리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국이 첫 슈팅에 성공한 것은 전반 30분에 이르러서였다. 김민우가 전방으로 찔러준 볼을 이근호가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에 막혔다. 그러나 황태자 남태희가 전반 36분 차두리의 패스를 이어받아 슛을 성공시키며 승세를 잡았다.

경기를 마친 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늘 경기를 계기로 더 이상 우리는 우승후보가 아니다"라고 아쉬움과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쿠웨이트가 여러 면에서 더 나은 경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며 "승리한 것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자평했다. 또한 "상당한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승리로 A조에서 가장 먼저 2승을 거둔 한국은 승점 6을 챙겼다. 뒤이어 열린 호주-오만전에서는 호주가 4-0으로 승리를 거둬 한국과 같은 승점 6을 챙겼다. 이로써 한국은 최소 2위를 확보해 8강 진출이 확정됐다.

골득실에서는 호주(+7)가 한국(+2)보다 앞서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오는 17일 브리즈번에서 A조 1위를 결정지을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조별 순위**

A조

| 순위 | 나라 | 승 | 무 | 패 | [illegible] | [illegible] |
|---|---|---|---|---|---|---|
| 1 | 호주 | 2 | 0 | 0 | 6 | [illegible] |
| 2 | 한국 | 2 | 0 | 0 | 6 | 2 |
| 3 | 쿠웨이트 | 0 | 0 | [illegible] | 0 | [illegible] |
| 4 | 오만 | 0 | 0 | 2 | 0 | -5 |

B조

| 순위 | 나라 | 승 | 무 | 패 | [illegible] | [illegible] |
|---|---|---|---|---|---|---|
| 1 | 중국 | [illegible] | 0 | 0 | [illegible] | [illegible] |
| 1 | 우즈베키스탄 | 1 | 0 | 0 | 3 | [illegible] |
| 3 | 북한 | 0 | 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3 | 사우디아라비아 | 0 | 0 | [illegible] | 0 | [illegible] |

C조

| 순위 | 나라 | 승 | 무 | 패 | [illegible] | [illegible] |
|---|---|---|---|---|---|---|
| 1 | 아랍에미리트 | [illegible] | 0 | 0 | 3 | [illegible] |
| 2 | 이란 | [illegible] | 0 | 0 | 3 | 2 |
| 3 | 바레인 | 0 | 0 | [illegible] | 0 | [illegible] |
| 4 | 카타르 | 0 | 0 | [illegible] | 0 | [illegible] |

D조

| 순위 | 나라 | 승 | 무 | 패 | [illegible] | [illegible] |
|---|---|---|---|---|---|---|
| 1 | 일본 | 1 | 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2 | 이라크 | 1 | 0 | 0 | 3 | 1 |
| 3 | 요르단 | 0 | 0 | [illegible] | 0 | [illegible] |
| 4 | 팔레스타인 | 0 | 0 | [illegible] | 0 | -4 |

<13일 현재>

# '발롱도르' 슈틸리케 감독·기성용의 선택은?

## 호날두-메시 각각 1순위로 꼽아 엇갈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울리 슈틸리케(사진 오른쪽) 감독과 주장 기성용(왼쪽)에게 주어진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Ballon d'Or) 투표권은 갈렸다.

13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개한 FIFA 회원국 감독·주장·기자단의 FIFA-발롱도르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주장

기성용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각각 1순위로 뽑았다.

발롱도르 투표는 각국 대표팀 감독, 주장에 기자단이 참가한다. 한 명이 3명의 선수에게 표를 던질 수 있고 1위로 지목한 선수에게는 5점, 2위에는 3점, 3위에는 1점이 주어진다.

슈틸리케 감독은 2순위로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를 지목했다. 3순위로는 최종 후보 3인에 든 메시가 아닌 앙헬 디마리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뽑았다. 기성용은 2순위로 호날두, 3순위로 에덴 아자르(첼시)를 선택했다. /장병호기자

# 호날두 발롱도르 2년 연속 수상

## 통산 세 번째… "매일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가 2014년 한해를 빛낸 최고의 축구선수가 됐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4년 시상식에서 최고 선수상에 해당하는 FIFA 발롱도르(Ballon d'Or)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2008년 수상까지 더하면 통산 세 번째다.

호날두는 "잊을 수 없는 한해였다"며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정말 특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껏 그랬듯이 팀이나 개인적인 타이틀은 계속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머니,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아들을 위해 매일 매일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롱도르는 2009년까지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이 선정했으며 2010년부터는 FIFA 올해의 선수와 통합돼 시상되고 있다. 호날두는 FIFA 가맹국의 감독·주장·기자로 이뤄진 선거인단 투표에서 37.66%의 지지를 얻어 15.76%를 지지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15.72%를 따낸 마누엘 노이어(29·바이에른 뮌헨)를 제치고 최고의 선수에 올랐다.

호날두는 지난해에만 소속팀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61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7골을 기록해 1962-1963시즌 호세 알타피니(전 AC밀란)와 2011-2012시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세운 종전 한 시즌 대회 최다골(14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최고의 여자축구선수상은 나디네 케슬러(볼프스부르크·독일)가 받았다. 남자축구 올해의 지도자상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끈 요아힘 뢰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돌아갔다. 여자축구 올해의 시[illegible]상도 독일 출신 랄프 켈러만(볼프스부르크)이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 배상문 4R '들쑥날쑥'

## PGA투어 현대토너먼트 아쉽게 6위 마감

배상문(29·사진)이 새해를 여는 2014-2015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컵 사냥에 실패했다.

배상문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11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도 적어내 3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잡한 심경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배상문은 1~3라운드 동안 선두권을 유지하며 개인 통산 세 번째 PGA 투어 우승을 노렸지만 6위(18언더파 274타)로 대회를 마쳤다.

새해 첫 대회의 우승컵은 연장전에서 지미 워커(미국)를 제압한 패트릭 리드(미국)에게 돌아갔다.

공동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출발한 배상문은 1~3라운드 동안 버디를 잡았던 4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치고 2m가 안 되는 파퍼트를 옆으로 흘리는 바람에 1타를 잃었다.

6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2m에 붙여 버디로 만회했지만 7번홀(파4)에서 3퍼트로 다시 1타를 까먹었다. 8번홀(파3)에서는 버디를 잡았다가 9번홀(파5)에서 다시 보기를 적어내는 등 들쭉날쭉한 경기를 이어갔다.

3라운드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노승열(24·나이키골프)은 마지막 날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묶어 5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8타로 공동 11위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mkum@

**프로농구 전적** 13일

| | | | | | |
|---|---|---|---|---|---|
| 삼성 | 21 | 12 | 23 | 19 | 75 |
| 모비스 | 25 | 18 | 31 | 26 | 100 |
| KCC | 12 | 22 | 17 | 24 | 75 |
| KT | 24 | 15 | 34 | 15 | 88 |

**프로배구 전적** 13일

| | | | |
|---|---|---|---|
| 대한항공 | 0 | 3 | OK저축은행 |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